

壬子本沈清歌研究

심동복(전북대)

〈목 차〉

1. 서 론
2. 본 론
3. 결 론

1. 서 론

고전소설에 있어서 하나의 이본은 원본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조선시대의 소설은 필사본을 통하여 보급된 까닭에 누락·오기 등도 많았고, 고의적으로 改變·敷衍 되는 경우도 많았다.¹⁾ 뿐만 아니라 영정시대에 이르러서는 평민문화의 형성으로 필사본을 대본으로 하여 목판본의 인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대중의 흥미를 돋우기 위하여 통속적으로 改變되어 마침내는 원본과는 판이한 이본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 고전소설이 成長文學으로 발달되었음을 시사해 준다고 하겠다. 아울러 원본에서 파생되는 이본들은 필사자들의 구미에 따라 창조적 전개를 하여 이본마다 개성을 지닌

1) 조선시대의 인쇄술은 발달되지 못하여 널리 확대되어 보급되지 못하고 필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작품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여기서, 이본고의 주요 과제가 원본에 가까운 대표적 이본을 탐색하고 복원하는 데에 있거니와 각개이본들을 비교 고찰하여 그 특성과 위상을 밝혀내는 작업이야말로 소설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청전’의 한 이본인 ‘심청가’를 고찰해 보려고 한다.

‘심청가’는 그 크기가 가로 20cm 세로 28cm의 규격을 가지며 한 면은 10행, 1행에는 26~28자로 쏘 28장(56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체는 순수한 우리말로 된 敍事文으로서 律調로 보아 歌劇體 文章이라고 하겠다. ‘심청가’는 현재 史在東의 소장이다. 필사 말미에, 경상도 경주군 성북리 이통 사호 이흥우 근서라고 하여 필사자와 유통지역을 어렵해 볼 수가 있다. 그리고 표지에는 ‘壬子陰四月日’이라 하고 본문말미에 ‘임자 사월이십육일 종필’이라 하여, ‘大正’에 관련된 낙서와 결부시켜 볼 때, 1912년에 해당되는 ‘壬子’에 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무튼 이 이본은 조선조 말기를 배경으로 경상도 지방에서 유통된 특이한 작품이라고 하겠다. 동시에 이 작품을 통하여 그 系統을 고찰해 보면 이는 경판본에서 완판본으로 변천하는 과정 중에 출현한 과도기적 산물임을 추정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심청가’가 가지는 구성상의 특질을 분석하여 이본간의 계통을 바로 세우고, 아울러 ‘심청전’의 목판이본들과 ‘심청가’의 내용을 비교 고찰하여 공통점과 相異點을 파악해 봄으로써 ‘심청가’의 변천양상을 유추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심청가’의 주제상의 특질은 종래의 견해에 비교하여 고찰하고 장르상의 문제를 考究해 보겠다.

2. 본 론

2.1. 구성상의 특질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심청가』는 1910년대의 필사본으로 경판본에서 완판본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유형이다. 따라서 경판본 내지 완판본과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심청가』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먼저 무대배치를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경판본에,

화설 디명 성화 년가의 남군산해 일위 명새 이스되 성은 심이요 명은 현
이니 <京板 1張 앞>

라고 한 것을 보면 중국의 ‘남군땅’ 임이 분명하다. 이 『남군』이 중국의 어느 곳인지는 알 수 없다. 이 『남군』의 지명에 대하여 사재동은 원래부터 추상성을 띠고 있으면서 작품 전체로 볼 때는 무엇인가를 상징 하는 듯한 암시를 받을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가 있다.²⁾ 불교사전을 보면 이 남군이 혹‘南郡’으로서 南洲(州)와 통하는 듯하며, 그것이 南閩浮提 또는 南瞻浮洲를 집약하여 사마세계를 나타내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줄게 한다.³⁾

그리고 심청이 용궁을 떠나 마침내 도달하여 그 아버지와 더불어 무상의 복락을 누리던 그 나라의 무대는,

(심청) 효의 출턴호오니 인가의 가모되이 불가호오 가히 뉴리국 왕회되어
평생 왕낙을 누리게 접지호나이다.

< 12張 뒤>

라고 한 것을 보면 ‘뉴리국’으로 보아지며 ‘뉴리국’도 ‘남군땅’과 같이 어떤 위치의 지명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뉴리국’이란 지명은 다른 이본에서는 심청의 출생 및 성장의 무대로 ‘유리국 도화동’과 ‘유리국오류촌’⁴⁾이 나온다.

완판본에서,

김동욱의 견해를 보면 황해도를 무대로 한 심청전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은 인정하면서도 전남옥과현 관음사 연기설화의 지리적 주변에 관심을 쏟고 있으며⁵⁾ 신기형 역시 ‘심청전의 배경이 황해도 황주가 아니고 충남도에 두어야

2) 사재동, 「심청전연구서설」, 『어문연구』 제7집, 1971, 152면.

3) 이운허, 불교사전, 1931, 118면. 참조.

4) 사재동 소장, 심청전 및 『심천가라』, 31~32면.

5) 김동욱, 「관소리 연구 - 열두 마당의 근원설화 및 성립과정」, 『한국가요의 연구』, 을유문화사, 1961, 381면.

좋았을 것을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아 황해도 황주 부근에 또 하나의 효녀전설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것이다.⁶⁾ 라고 하였다. 또한 신동일은 ‘거타지설화에 나오는 곡도가 지금의 백령도요?’⁷⁾ 라고 했다. 이상의 완판본을 대본으로 고찰한 여러 학자들의 주장은 한결같이 황해도 황주설의 벽을 뚫지 못하고 있어 한국을 벗어나지 못한 정설처럼 굳어진 실정이다.

그러나 ‘심청가’에는 ‘유리국 도화동’으로 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어디를 나타내는지는 알 수 없으나 불국토의 낙토를 상징한다고 보아진다. 즉, 사람들이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을 비유한 별천지나 천국을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극락정토, 안락국토, 연화세계를 상징하는 것으로도 보아진다.

다음으로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경판본에서는, 심청, 심현, 정씨부인, 남군땅 사람들, 화주승, 상고들, 용왕과 그 시녀들, 누리곡왕과 신하들, 맹인들로 되어 있다. 이들 인물들은 필연성에 의하여 등장하고 있다. 여기서 각 인물의 성격에 대하여 그 대강을 살펴보겠다.

주인공 심청은 남군 땅에서 심현과 정씨부인의 외동딸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용모가 단정하고 효성이 지극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특히 심청의 신앙심은 독실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녀가 천지신명에 우러러 간구하는 원시적 신앙도 있지만 佛道를篤信하고 공행하는 점이 강조되어 있다. 그러기에 공양미 삼백 석을 시주하면 아버지 눈을 뜨게 되리라는 화주승의 말을 믿고 실천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작자는 심청을 문자 그대로 沈淸한 존재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의 화신으로 具象하려고 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것이다.⁸⁾ 이와 같은 견해는 불교적 관점에서 고찰한 것으로써 심청이 왕후가 된 후에 왕을 도와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제하는 대목을 보아도 보살의 행각임에는 틀림없다.

다음으로, 심청의 아버지 심 현은 명문 귀족의 은거하는 名儒로서 전형적인 가장이다. 그리고 그 역시 佛道를篤信하여 현세의 안명이 전생의 죄업이라 믿으며 부처를 한번만이라도 속이는 날에는 지옥에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化主僧은 심 현의 마음을 움직여 공양미 삼백 석을 시주하게 하고 심청의

6) 신기형, 『한국소설발달사』, 창문사, 1961, 333면.

7) 신동일, 『심청전의 설화적 고찰』, 논문집 제7집, 육군사관학교, 1969, 24면.

8) 사재동, 전계 논문, 155면.

夢中에 나타나 불공에 대한 신념을 가지도록 하였다. 그는 마치 ‘目連傳’이나 ‘安樂國太子傳’, 그리고 ‘九雲夢’에 나타난 대덕 스님형이라 하겠다.⁹⁾

또한 남군 땅 사람들은 심청을 물심 양면로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부처의 영험을 믿으며 후세에 심청과 함께 한 집안에 태어나기를 바란다. 아울러 남경 상인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악역을 맡은 사람들로써 심청의 효심에 감동하고 심 현의 사정에 동정하는 것이다. 한편, 용왕은 전세 심청의 부친으로서 자애를 베푸는 선인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유리국의 왕 역시 심왕후의 내조로 선정을 베푸는 聖王이며 심 왕후를 끔찍이 사랑하는 자애로운 남편으로 되어 있다.

끝으로, 유리국 왕의 신하들이나 잔치에 참례하는 맹인들 역시 한결같이 善人들이다.

완판본에 출현하는 등장인물들을 보면, 심청, 심학규, 광씨부인, 化主僧, 商賈들, 귀덕어미, 장승상부인, 황봉사, 뺨덕어미, 안씨맹인, 심청의 아들(왕태자), 심봉사 아들(태동), 많은 신선, 선녀들, 방아 찧는 아낙들, 장난꾸러기 아이들, 목동들이다. 이들 인물 가운데 중심이 되는 인물만을 언급하면, 경판본에서는 심청의 지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묘사가 없는데 완판본에서는 무학의 심청을 고사숙어나 한시에 능한 지식인으로 나타나 있다. 최운식 교수는 완판본을 宋洞本을 바탕으로 하여 보다 흥미롭고 감동적일 수 있는 단락들을 첨가·윤색하여 문장을 보다 풍부하고 화려하게 꾸며 많은 삽입가요를 넣어 구성했다고 하였다.¹⁰⁾ 또한 심청의 ‘孝’를 화려하게 과장 설명하고 있다. 심청의 아버지 심학규는 후대인 <광대 중심>에서 유흥분위로 마구 변조된 평범한 서민형이다. 또한 그는 무능하기가 비할 바 없는 존재로 묘사되어 있다. 더구나 주인공 심청이 보다 심봉사를 더 여실히 표현하였다. 이것은 『춘향전』에 있어 주인공인 춘향보다도 춘향의 어머니 월매를 더 자세히 묘사한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주인공이 아닌 부속인물에 대한 묘사에 치중하는 것은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주인공은 존엄하고 도덕적인 인물임을 강조하기 위한 방편으로 풀이 된다. 즉, 우리 고전소설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춘향전에 있어 춘향과 향

9) 目連傳에서는 부처님이 직접, 安樂國太子傳에서는 勝熱婆羅門比丘가 主人公들을 각각 至善의 方向으로 敎示·인도하였고 구운몽에서는 육관대사가 꿈으로써 성진을 깨닫게 한다.

10) 최운식, 『심청전 연구』, 집문당, 1982, 122면.

달이, 이도령과 방자와 같은 귀족적인 인물과 평민적인 인물의 배치와 같은 것이라 하겠다.

상기한 등장인물에서 경판본의 인물들은 단순하게 구성되었음을 볼 수 있으나, 완판본에서는 경판본의 후대적 징후로 생각되어지는 인물들이 많이 출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이 『심청가』에서 등장인물은 과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심청가’에 등장인물은 심평구, 곱씨부인, 심청, 뽕덕어미, 화주승, 황봉사, 남경장사 선인들, 여인봉사, 유리국 왕 등이다. 여기에 등장인물은 경판본에서 보다 뽕덕어미, 황봉사, 여인봉사 등이 더 첨가되었고 완판본의 경우는 ‘심청가’보다 귀덕어미, 안씨 맹인, 방아짚는 아낙들, 목동들, 장난꾸러기 아이들, 심청의 아들, 그리고 심봉사의 아들이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덧붙여져 작품을 구성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심청가’는 경판본과 완판본의 과도기적 작품으로 생각되어진다. 11)

그리고 사건에 있어서도 등장인물과 비례하는 양상을 보인다.

경판본의 경우는 단순 사건 구성이며 완판본의 경우는 좀 더 복잡한 사건 구성으로, 伏線(Under plot)과 갈등도 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심청전』에 있어서 ‘뽕덕어미’의 등장으로 야기되는 대립적 가치관과 윤리관의 갈등이라고 보아진다. 따라서 ‘심청가’에 있어서 ‘뽕덕어미’의 등장은 그 사건의 과도기적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다. 이것으로 보아도 역시 경판본은 선행본이며 『심청가』는 과도기적 이본으로 규정지를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경판본 선행설은 일찍이 사재동이 밝힌 바 있다. 12) 그는 『심청전연구서설』에서

민간 전승적 작품들의 시대적 순위를 가리는 데에 있어, 그 작품들의 구성 양식을 비교해 보는 양식사적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 하나의 보편적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시대가 앞서서 작품일수록 후대적 작품에 비하여 그 구성 양식이 보다 단순 소박하고 차분하게 짜여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11) 등장인물들이 복잡한 관계로 발전되어 가는 것으로 보아 경판본에서 『심청가』의 과도기적 작품으로, 그리고 완판본으로 발전되었다고 보아진다.

12) 사재동, 전게서, 127~170면.

기준은, 적어도 한 작품의 여러 이본을 놓고, 그 선후 관계를 가름하는 데에는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리라 믿어진다.¹³⁾

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견해는 이문규에 의해서도 강조되었다.

완판본은 경판본에 비해 구조 자체가 복잡하고 짜임새도 통일성이 없으며 문체도 미사여구를 많이 쓴 화려체며 이에 반해 경판본은 구조가 간단명료하며, 내적 질서가 있으며 표현도 간결한 간결체의 문장이라 하였다. 따라서 완판본보다 판본이 선행모체일 가능성이 농후하다.¹⁴⁾

라고 주장한 바가 있다. 이야기는 오래 전해 내려올수록 더 불어난다는 사실은 평범한 원리이며 간소한 내용을 지닌 이본이 민중의 구미에 맞도록 풍성한 내용을 가진 작품으로 변모 발전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간소한 내용의 것은 풍성한 내용을 가진 이본보다 원본에 가까운 것이라는 점은 원칙적으로 공인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심청가’의 사건은 어떤가, 경판본에 비하면 풍성하고, 완판본에 비하면 간결하다. 그러므로 ‘심청가’는 그 사건 전개에 있어서도 양자의 중간적 위상을 지니는 것이라고 하겠다.

경판본과 완판본의 선후 관계는 문체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경판본의 경우는 그 표현이 간결·소박하여 수식어나 감탄사의 나열이 자제되어 있고 고투의 산문체를 지니고 있다. 완판본의 문체는 佛文体를 보이며, 풍성한 형용사의 수식이며 감탄사, 잔사설, 고사 성어나 한시 등이 무리하게 삽입되어 있다. 이는 완판본 같은 판소리계 소설에 공통되는 가극체 문장을 닮아 간 조 선말기의 成長文學性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후대적 양상은 작품 구성상 전반적인 면에서 보다 통속적이고 서민적 정취를 지니 고아풍을 벗어난 어휘와 어법, 그리고 남도방언이 뒤섞여, 원본에 보다 접근하는 경판본에 비해 후대적 양상을 띄고 있다고 보아진다.

그런데 ‘심청가’는 등장인물이나 사건에서처럼 문체면에서 특성을 드러낸

13) 사재동, 전게서, 134면.

14) 이문규, 『한국고전산문연구』, 동화문화사, 1981, 287면.

다. 전체가 가사체로 되어 있는 것이 우선 주목된다. 이것은 판소리로 演唱되었다는 확실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대목을 들어 보면, 바로 부녀 이별 장면이다.

공양미 삼백석을 달리는 할 수 없어 남경 장사 선인들께 몸을 이미 팔았으니
불효한 이 여식을 금옥같이 사랑타가 오늘날 가슴 위에 불을 담아 부친 줄을
넌들 어찌 모르겠가. 불효한 이 여식을 후세나 다시 만나 위로 공양 하오리다.
심봉사 깜짝 놀래 참말이나 헛말이나 그런 말이 어이 있으리 가슴을 팡팡 두드
리며 머리를 탕탕 부딪치며 그 말이 웬 말이나 너 죽고 내 눈 뜯들 선연 상대
내 못하고 세상 용납 어이하리…….15)

이처럼 문체가 경판본에 비하여 후대적인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묘사의 간결성이나 기교의 단순성, 소박성에 비추어 보면 완판본에 비하면 앞서리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아무튼 판소리 대본이라는 점에서 볼 때 상호관계가 깊은 것만은 확실하다. 그러면서도 ‘심청가’가 판소리의 성격을 강하게 지님으로써 판소리를 통하여 부연·조정된 완판본에는 선행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따라서 ‘심청가’는 경판본과 완판본의 중간적 문체를 유지하면서, 이 작품이 몇 가지 장르로 규정될 만한 독특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2. 내용상의 특질

‘심청전’의 내용은 통속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그것은 완판본을 대본으로 삼아 연구한 학자들의 견해다. 그리하여, 채훈은 ‘심청전’이 ‘춘향전’과 함께 서민문학의 쌍벽¹⁶⁾ 이라고 하기까지에 이르렀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조동일은 ‘심청전에 나타난 비장과 골계’에서 이 작품의 통속성을 밝혔다.¹⁷⁾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완판본계의 이본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로써 보편적인 것은 아니다.

15) ‘심청가’는 가사체로 진행되면서도 소설 문체로서 구실을 다 하고 있다. 전체의 서술에서 장면묘사를 사실적으로 해내고 있다. 따라서 이 문체는 경판본과 완판본의 중간적 위치라는 것이 드러난다.

16) 채훈, 『심청전』, 현암사, 1969, 748면.

17) 조동일, 「심청전에 나타난 비장과 골계」, 『계명논총』 제7집, 계명대학, 1971, 748면.

그렇다면, ‘심청전’의 내용상의 특질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심청가가 완판본계에 가까운 내용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완판본의 경계와 비교하여 보는 것으로 하겠다.

완판본의 경계와 비교

- 괘씨부인이 심봉사를 공경한다.
- 자식 낳기를 기원한다.
- 부인이 위독하게 되자 심봉사 내외가 애절하게 사설을 주고 받는다.
- 부인의 장사 때 심봉사는 통곡한다.
- 부인을 여윈 후에 심봉사 애통해 한다.
- 심봉사는 심청을 젓동냥으로 양육한다.
- △ 무릉촌 장승상부인에 관한 일절의 이야기.
- △ 귀덕어미가 등장한다.
- 공양미 삼백석에 팔려가는 심청.
- 심청이 배에 올라 인당수에 이른다.
- 심청이 물에 뛰어든 후에 구제를 받아 수정궁에 이른다.
- △ 심청이 수정궁에서 전세의 어머니인 옥진부인을 상봉한다.
- 뽕덕어미에 관한 이야기.
- △ 심청이 왕후가 되어 아버지에게 기러기 편으로 편지를 보내려 한다.
- 심봉사 맹인 잔치에 가다.
- 황성길에 황봉사에게 뽕덕어미를 가로 채인다.
- 심봉사 황성길에 개울에서 목욕하다가 옷을 잃고 한탄한다.
- 심봉사가 무릉 태수의 행차를 만나 재주를 부려 황성가는 노자를 얻는다.
- △ 심봉사 황성길에 목동을 만나 희롱을 당한다.
- △ 심봉사 황성길에 방아짚는 아낙들과 음담을 한다.
- △ 심봉사 안씨 맹인과 다시 결혼을 한다.
- △ 심봉사와 안씨 맹인이 아들을 낳고 심황후도 태자를 낳는다.
- △ 심황후의 아들 태자에 관한 이야기.
- △ 심봉사가 남편왕이 되고 그 아들 태동이 입신양명한다.

이상의 경계는 경판본에는 들어있지 않으면서도 완판본에는 있는 장면들이다. 이와 같이 완판본은 얼마나 풍성히 작품이 표현되고 있는가 알 수 있다. 그리고 ‘심청가’의 경우는 완판본의 장면들보다 표(△)한 부분이 생략되어 있

다. 이것은 등장인물을 소개할 때나, 사건의 구성과도 비례하는 현상이다. 덧붙이는 인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건은 복잡하게 구성되며 빈도수도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역시 ‘심청가’는 경판본과 완판본의 중간적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심청가’의 통속성을 살펴서 중간적 작품임을 추정해 볼 수도 있다. 이에, 경판본은 점잖은 문체로 통속성을 찾아볼 수 없으나, 이것도 완판본의 특성과 비교해 보기로 한다.

- 심봉사가 심청의 출생시에 성을 구별하는 장면에서, 심봉사의 점잖지 못한 말투.
- 심봉사가 뽕떡어미와 동침하는 장면의 음사가 풍부한 통속성.
- 황성길에서 심봉사가 뽕떡어미를 황봉사에게 빼앗기는 장면.
- 심봉사가 황성길에 목욕을 하다가 옷을 잃어 벌거숭이로 관행차 앞에 나서서 주책부리는 장면의 비천성.
- 심봉사가 안씨 맹인을 만나 인연을 맺어 동침하는 장면.

이와 같이 통속성에 관하여 살펴 보아도 후대적 이본에 접근될수록 풍성한 통속성을 가진다는 것이니,¹⁸⁾ 경판본의 경우 통속성은 전혀 묘사되지 않고, ‘심청가’에서는 위의 장면 중 ● 표한 장면만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것도 완판본의 경우에 비해서 약하게 표현되고 있다.

이같이 완판본계의 작품을 대중적 성정에 영합하기 위해 후대적으로 뜻에 따라 삽입된 것이라고 보아진다. 이로써 통속성이 전혀 물들지 아니한 경판본은 원본의 작품 체계에 훨씬 가깝고 완판본은 후대적 이본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심청가’ 같은 유형은 과도기적 형태로 보아야 하겠다.

2.3. 주제상의 특질

‘심청전’은 작자와 연대가 미상인 ‘孝’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고대소설로서는

18) 김동욱, 「한글소설 판각본의 성립에 대하여」, 『춘향전 연구』, 382면에서 ‘근대 자아의 형성과정에서 이러한 인파가 호농(낙향양반)들에게까지 미치게 된 것은 도시의 성립과 서책이나 지물보부상의 진출도 고려해 넣을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 형식과 내용, 구상과 서술법이 발달되었으며, 불교, 유교 등 당시의 민간사상에 근간을 두고 연속적인 면을 잘 반영시킨 작품이라는 것이다. 19)

유교에서 말하는 ‘孝’라는 개념은 매우 현실적이며 상대적이다. 그런데 ‘심청가’에서 표현되는 ‘孝’의 개념은 그와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다. ‘심청전’의 주제에 대해 연구된 것들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심청전의 주제는 유교의 근본사상인 ‘孝’에 두었으나 그 효가 불효의 인과사상에 의해서 달성되도록 꾸며 놓은 윤리소설이라 하겠다. 20)

여기에서 보면 ‘효’와 불교적 사상과는 별도의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고 보아진다. 그러나 ‘효’가 불교적 사상으로 뒷받침되고 있는 것이 ‘심청전’이라는 주장이 있다. 김동욱은,

심청전의 주된 테마는 ‘孝’에 있겠지만, 그 제제는 開眼說話處女生贊說話의 두 가지가 주가 되어, 이것이 인과적 불교사상에 뒷받침이 되어 ‘孝’를 중추로 하여 결합되어 있다고 하겠다. 21)

라고 하여 유교적 ‘효’에 주제를 두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상적 배경은 불교로 보면서 ‘孝’에 대해서만은 조선인들의 관용어구 같은 유교적인 것으로 설명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조선시대의 시대성을 아울러 지닌 ‘孝’ 라지만 불교적 견지에서 파악될 때만이 ‘심청전’의 주제가 제대로 파악된다는 견해다. 이같이 불교적인 관점에서 파악될 때 작품상 ‘孝’라는 것은 더욱 적극성 있고 초연하면서 달관된 자세로 행해질 수 있다고 하겠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심청전’은 전생의 죄업으로 지옥고를 겪고 있는 심청 부녀가 불제자의 인도로 자신의 모두를 바쳐 희생적 불공을 드림으로써 현세 고를 면하고 구제를 받게 되는 과정으로 본다는 사재동의 주장에 공감을 하는

19) 신기형, 전거서, 330면.

20) 김기동, 『한국고전소설연구』, 교학연구사, 1983, 867면.

21) 김동욱, 『한국가요의 연구』, 을유문화사, 1961, 381면.

것이다. 22)

첫째, 이와 같이 불교적 관점으로 ‘심청전’의 주장을 고찰할 때, 심청의 죽음은 종교적으로 승화된 희생적 참회가 아니고는 작품에서 가치성을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단지 유교적 개념으로서 ‘孝’를 매개로 이 작품을 유도해 갔으며 심청의 죽음이란 구조상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유교 논리상 죽음이 아니고서라도 심청은 눈먼 부친을 위해서 다른 방법을 택했어야만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심청전의 유교적 개념으로서 ‘孝’는 모순에 봉착한다.

둘째, 불교적 개념으로서 ‘孝’는 몽은사 화주승의 등장과 공양미 삼백석으로 주인공을 탄생시킨 후에 다시 유교적 현실주의와는 거리가 있는 蓮花 환생과 이어져 결국 부친의 개안을 가져오는 인과적 구조를 구성하고 있다. 이것은 역시 ‘孝’라는 것도 인과인 것을 시사하는 것이며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설과 업보의 진리가 ‘심청전’에서 그대로 주체화된 것이라고 보아진다.

그리고 ‘심청전’의 이본 가운데 활판본보다는 완판본이 완판본보다는 경판본이 信佛의 농도가 점차적으로 짙어감을 볼 수 있으니, 경판본은 시대적으로 선행하며 완판본계에서는 불교신앙의 타락상을 후대적 특징과 함께 가진다. 따라서 이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는 고전소설이 후대에는 대중적 영향이라는 시대적 요청과 흥미본위, 商魂이 작용했으리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심청가’에 있어서 어린 나이에 장님 아버지를 봉양하는 것, 또 맹부를 위하여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 것, 연꽃으로 환생하는 것, 유리국의 왕후가 되어 맹부의 눈을 뜨게 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불교적 신앙의 경지가 아니고서는 힘든 것이다. 그러나 후대에 속화된 완판본을 제재로 하여 연구해 온 여러 학자들이 이를 불신적인 방향으로 몰아 부처에게 빌어도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심봉사가 눈을 뜨게 된 것은 아주 우연한 고전 소설적 특성인 것이라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나 그 사건은 결코 우연성이 아니고 종교적 필연성으로 파악된다. 말하자면, 몽은사 화주승의 말대로 심각한 보시, 희생으로 결국 무상의 영화를 누리게 되는 까닭에 ‘심청전’은 확연한 불교적 신앙으로 조직되는 것이다. 그런데, 가장 후대적 이본인 활판본에서는 아주 불교가 격하되어 부처를 세속인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조선시대의 불

22) 사재동은 심청전이야말로 불교사상을 나타낸 조선시대의 佛典과 같은 존재로 보고 있다.

교적 사상이 승유억불 정책에 밀려 마침내는 쇠퇴일로에 있었음을 실증하고 있다는 터라 하겠다.

이제, ‘심청가’를 보면 불교적 신앙의 면모를 웬만큼 나타내고 있다. 심청이 부친게 信條있는 보시 공덕심과 후원에서의 발원을 보면 불교적 신념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부처나 보살을 천지 지신과 일월성신을 함께 놓고 비는 것은 불교를 신봉하는 신앙이 경판본에서 보다 약하게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심청가’는 종교사상적 면에서도 경판본과 완판본의 중간적 작품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하겠다.

2.4. 장르상의 특질

‘심청전’은 성장문학으로서²³⁾ 설화가 소설화된 것이며²⁴⁾ 판소리게 소설이라고²⁵⁾ 한다. 때문에 어떤 한 개인의 의도에 따라 창작된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을 통하여 문예에 뜻을 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계승된 것이다. 그러므로 ‘심청전’의 근원설화도 佛典이 전래되어 보급되던 시점에 사찰을 중심으로 율려지고 講說되면서 그 시대의 실정에 맞도록 변형되고 윤색된 결과라고 본다.²⁶⁾ 말하자면, 승려를 비롯한 불교계의 인사(문사)들이 불교 시주의 공덕과 포교의 목적에서 하나의 이야기거리 ‘소설’을 構想해 냈다고도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원본 ‘심청전’의 이야기가 민중에 구전 유포되었다 하더라도 민중을 크게 감동시키지 못하였고 이런 상황에서 대중적 통속성과 야합되어 마침내는 불교적인 성격이 퇴색된 ‘孝’를 주제로 하는 유교적 도덕소설이라 할 만큼 변용되었다고 보아진다. 따라서 민중의 구미에 맞는 판소리의 출현도 함께 보게 되었다고 하겠다.²⁷⁾

23) 김동욱, 「춘향전 이본고」, 『춘향전 연구』, 연세대 출판부, 1965, 65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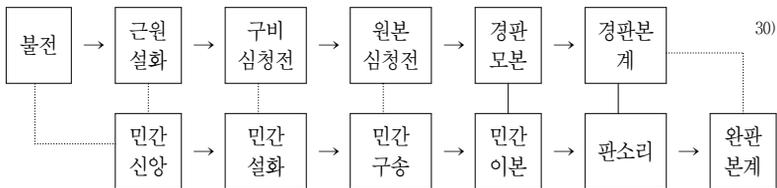
24) 장덕순, 「심청전 연구」, 『국문학통론』, 신구문화사, 1960, 235면.

25) 김기동, 「심청전」, 『한국고전소설연구』, 교학연구사, 1983, 886면.

26) 차상원은 『중국문학사』, 동국문화사, 1957, 34면에서 ‘변문이란 고대의 경전을 평민들이 알고 납득할 수 있게 평이하게 풀어 쓴 것인데 포교와 아울러 권선을 목적으로 일반 평민을 상대로 하여 알기 쉽게, 흥미있게 대중을 감동시키고자 하여 당대에 유행한 歌體나 승려간에 유행했던 唱文도 채택하여 썼다.’라고 하였다.

27) 소재영, 『고소설통론』, 이우출판사, 1983, 27면에서 소설문학의 집착과정은 구송문학과 연창문학으로 나누는데 講談師나 傳奇叟에 의한 문학은 전자요, 唱과 아니리로 걸어가는

한편, 이 무렵에 대두된 판소리는 보수적인 경판본을 이어 받으면서 대본을 개척해 나갔다고 하겠다. 광대들은 민중의 인기를 얻으려는 야심에서 음담패설과 고사 성어, 한시 등을 마구 끌어들이 화려하고 풍성한 가락에 맞는 판소리를 생각해 냈다고 하겠다.²⁸⁾ 그러면 佛典에서 비롯된 ‘심청전’은 어떤 형성 과정을 걸쳐 발전되었는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고전소설은 대중화와 함께 상업적으로 대량 출간되기에 이르렀다.²⁹⁾ 이에 서울 방면에서는 보수적인 독자층에 영합하여 원본에 가까운 모체를 찾아 坊刻에 부쳤는데 이것이 바로 경판본 ‘심청전’이요, 전주지방에서는 경판본의 출현에 자극되어 대중적 인기 호응하기 위하여 흥행성 높은 판소리를 정착시켜 板刻하였던 바 이것이 바로 완판본 ‘심청전’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계열을 달리하여 말하면 경판본과 완판본으로 구별되나 중국에는 경판본계와 완판본계를 형성시켰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재동은 하나의 가설적 試案에 불과한 것임을 전제하며 다음과 같이 ‘심청전’의 형성과정을 도시하였다.



그러면, 위와 같은 형성과정을 거쳐 발전된 경판본과 완판본을 대비시켜 ‘심청가’의 위상을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전술한 바와 같이, ‘심청전’은 많은 이본을 가지고 있는 작품으로서 아직도 발굴의 여지가 많다. 이러한 작품을 가지고 경판본과 완판본에 중심을 두는 연유는 현존 원전이 대체로 경판본계와 완판본계의 두 계열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경판본은 서울지방을 중심으로 하여 보수적인 특성을 지

광대의 판소리는 후자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28) 消滅一路에 있던 가사 및 사설시조와 야합하여 판소리 가극체의 완성을 보았다고 본다.

29) 김기동, 전계서, p. 861.에서 이 작품의 목판본은 경판본과 완판본의 양종이 있고, 활판본으로는 1915년에 발행한 박문서관판(84면)을 비롯한 5, 6종이 있다.

30) 사재동, 전계서, 166면.

닌 이본이고 완판본은 전주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대중적인 면모와 통속적인 흥행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드러났다.

그렇다면, ‘심청가’는 구성이나 내용상에 있어 경판본과 완판본의 중간적 위상을 지닌 과도기적 작품으로서 제반 특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하겠다. 먼저, 이 작품은 敍事文學, 소설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소설 장르로 규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표현, 문체를 중심으로 볼 때, 이 작품은 단순한 소설형태가 아니라 전체가 가사적 울조를 갖추고 있으므로 이야기로서의 기본구조를 노래형식으로 풀어갔던 것이 확실하다. 여기서, 이 작품은 이른바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잠정적으로 취급할 수가 있겠다. 그렇다면, 이런 유형의 작품이 판소리에 의하여 說唱되었을 것은 분명하다. 여기서 ‘심청전’·‘심청가’와 판소리의 관계를 따져 볼 필요가 있겠다. ‘심청가’가 판소리의 대표적 작품임은 주지의 사실이거니와, 그것이 소설적으로 정착, 조정되어 판소리계 소설로 발전한 나머지 완판본 ‘심청전’으로 행세하게 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심청가’가 판소리계 소설에 선행하는 판소리의 대본이라는 것을 족히 알 수가 있다. 이 ‘심청가’와 판소리의 관계를 새삼스럽게 논의할 여지는 없지만, 판소리와 불교 그리고 ‘심청가’의 관계를 주목할 필요는 있다. 일찍이, 정병욱은 ‘한국의 판소리’에서 판소리와 불교의 관계를 논의하는 가운데 ‘심청가’를 예로 들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판소리와 불교하면 누구나 먼저 쉬 생각나는 작품이 ‘심청가’일 것이다. 심청이가 남경 장사 선인에게 몸을 팔아 300석의 공양미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데에서부터, ‘심청가’의 줄거리는 시작되기 때문에 ‘심청가’의 바닥을 이루고 있는 것은 심청의 信心 즉, 부처님을 믿는 지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바꾸어 말하여 심청이 아무리 孝心이 두터웠다 할지라도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 없었다면 ‘심청가’는 성립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심청의 신심은 비단 심청만의 신심이 아니라 ‘심청가’를 듣고 함께 울고 함께 즐겨하는 판소리의 청중 즉 일반 대중들의 신심이기도 하다고 생각한다면 유교 일변도의 이조 사회에서 서민들의 생활 속에 불교가 얼마만큼 깊이 뿌리박고 있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³¹⁾

31) 정병욱, 『한국의 판소리』, 집문당, 1984, 108~109면.

라고 하여 조선조의 外儒內佛의인 신앙에 대하여 언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청가’는 그 당시 민중의 신심인 불교적 성격을 지닌 판소리라는 주장이다. ‘판소리’란 무엇인가, ‘판소리’란 말은 판+소리로 된 복합명사로 ‘자초지종 일관된 줄거리를 갖추고 있는 이야기를 성악으로 불러내되,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공연되는 예술 활동’³²⁾ 이라고 하였다. 즉 청중 앞에서 배우가 서사시를 성악으로 공연하는 한국의 독특한 예술 형태라고 보아진다. 따라서, 판소리는 한 사람의 광대가 고수의 장단에 맞추어 設唱해 내는 연극형태라고 보아 마땅할 것이다. 이에 ‘심청가’는 불교계통의 판소리 대본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심청가’는 판소리 연극의 대본으로서 바로 희곡형태라고 규정될 수가 있겠다. 실제로, 판소리게 소설 완판본 ‘심청전’에서도 그 희곡적 성격을 찾아볼 수 있거니와, 그보다 적극적인 ‘심청가’가 희곡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일찍이 천태산인도 판소리게 ‘심청전’의 문체를 두고

이 문체는 가극체이며 唱戲에 붙여서 實演하야³³⁾

라고 하여 그것의 희곡성을 시사한 바가 있다. 실제로, 이 ‘심청가’의 한 부분을 들어보면 부녀상봉의 장면이다.

심황후 분부하되,
 “말석에 앉은 맹인 대상을 불러오라”
 이전 노자 불명하여 심봉사를 인도하여 대상에 불러 앉히고 심황후 분부하되, “어데 살며 성명은 무엇이며 나이는 얼마나 되며 자제간은 몇이나?”
 심봉사 어짜오되,
 “소명이 있삽기는 유리국 도화동에 있삽고 성명은 심평구라 하옵고 나이는 칠십 육세로대 삼십전 안맹하고 무남독녀 심청이를 강보에 길러내어 인당수 제수에 팔아 먹은지 삼년이요 그만 밖에 죄가 없사이다.”
 심황후 기가 막혀 뚜렷이 살펴보니 백수풍진 늙은 형용 슬픈 근심 가득하고 후유 한숨 쉬는 것과 말소리 걸음걸이 부친 일신 분명하다. 은사주렴 거들치고

32) 정병욱, 전거서, 24~26면.

33) 김태준, 『심청전의 연구』, 학예사, 1939, 면114.

와다닥 뛰어 달려들어 심봉사 가는 허리 후리쳐 질끈 안고 하는 말이, “아버지 눈을 열어 나를 급히 보옵소서 인당수에 죽은 심청이 다시 살아 왔소.”(現代文化 부호 삼입, 筆者)

이상에서, 이 ‘심청가’는 극적인 사건에 대사·대화가 발달되어 있고 전체 또는 부분이 노래할 수 있는 唱詞의 구실을 함으로써 실로 희곡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다 하겠다. 이 ‘심청가’는 판소리 형태로 說唱되던 강창극대본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그것은 講唱文學·戲曲形態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보아진다.

우선, 강창문학에 대하여 살펴보면, ‘강창양식에 의해 구성된 서사작품’³⁴⁾ 즉 산문과 운문이 유기적으로 완결성을 지니면서 총체적 서사구조를 이루고 있는 작품을 일컫는다고 하겠다. 따라서 講唱時에는 산문은 講說되고 운문은 歌唱되었다.³⁵⁾ 따라서, 판소리의 ‘아니리’와 ‘唱’의 結構樣式은 형식적 측면에서 강창문학과 유사성을 지닌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이 ‘심청가’ 유형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판소리의 대본으로서, 소설로서, 또는 연극·영화로서 만인의 갈채를 받아 왔다고 하겠다. 심청이 그의 아버지와 생이별을 하는 대목은 눈물을 금치 못하는 가장 절실한 표현이었고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 장면에서는 哀憐한 정을 이기지 못하도록 표현해 놓았으며 왕후가 되어 아버지의 눈이 열리는 장면은 만인의 환희를 자아내게 표현해 놓았다. 특히 부친에게 희생적인 효성으로 부처님의 영험에 의해 천인이 귀인이 되고 맹인이 開眼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시대상의 신앙적인 반영이며 부모님께 하는 ‘孝道’는 응보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한 까닭에 불교계의 중흥을 꾀하는 대덕 스님들이 중심이 되어 우선 민중에 佛心을 심고 유포시키려는 포교상 목적에서 그 작품이 희곡으로서 강설되고 가창되었다고도 보아진다. 그러면 ‘심청가’의 歌辭의 성격을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歌

34) 경일남, 「고려조강창문학연구」, 충남대학교출판부, 1989, 1면.

35) 소재영, 전제서, 13면을 보면, 직업적 講談師나 傳奇叟에 의해 소설이 낭독되었다. 趙秀三의 秋齊集에는 심청전, 속향전, 소대성전, 설인귀전 등의 작품을 구송하는 기록이 보인다. 못사람(독자)에게 둘러싸여 유창한 음성으로 독자의 소설을 읽는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여 인기를 얻고 돈까지 벌어들이는 일종의 商行爲(邀錢法)와 관련되어 직업성까지 엿볼 수 있다.

辭는 국문학에만 있는 특이한 장르로 외형은 율문이면서 내용은 서정적인 면과 서사적인 면의 산문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歌辭는 불교계에서는 포교를 위한 詩歌로³⁶⁾ 많이 창작되어 왔다. 그리고 가사는 三四調 또는 四四調를 무제한으로 늘어놓을 수 있는 자유로운 형식인 것이다.

이상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경판본은 소박하고 간결한 산문체, 완판본은 율문체라고 규정되어 왔다. 그렇다면, 이 ‘심청가’는 제목부터 詩歌를 지향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 작품 전체가 歌辭體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심청전’을 노래로 읊은 장편가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가사는 ‘이야기체의 노래’로 보아지기 때문이다. 이 ‘심청가’는 판소리로 연창하기에 적합하도록 歌曲化함으로써, 가사의 면모를 지니게 되었던 것이다.

요컨대, ‘심청가’는 ‘심청전’을 가곡화한 판소리계 소설로 보아진다. 그런대로, 그것이 보다 적극적으로 판소리화 되고 그 대본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가곡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판소리를 강창극으로서의 연극으로 간주할 때, 그것은 연극대본 즉 희곡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이 ‘심청가’는 전체의 율로 보거나 응축된 시가성으로 보아, 이야기체의 노래로서 가사의 형태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심청가’는 하나의 작품이면서 그 서사문학적 바탕 위에 몇 개의 장르적 성격을 입체적으로 경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이 바로 ‘심청가’의 異本的 특성이며, 그것만이 지니는 가치라고 보아진다.

3. 결 론

본고는 ‘심청가’를 경판본 내지 완판본과 비교하여 중간에 위치하는 이본으로 간주하고, 분석·고찰함으로써 이 작품의 위상을 검토하였다. 지금까지 논의된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심청가’는 구성상으로 경판본의 후대적인 작품으로 무대상의 변화가 있고 몇 명의 인물이 더 첨가 되었으며 완판본보다는 몇 명의 인물이 생략되었다. 사건 전개에 있어서도 경판본보다 약간 복잡하게 처리되어 있고, 완판본보다는 비교적 단순하다. 문체는 율문체로서 경판본과 완판본의 중간에 있다. 그러므로 이 작품은 경판본과 완판본의 중간에 위치하

36) 최강현, 「가사의 발생사적 연구」, 『가사문학연구』, 정음사, 1979, 13면.

- 는 과도기적 異本임이 드러났다.
- (2) ‘심청가’는 내용상으로 완판본의 장면들보다 부분적으로 생략된 점이 있고 등장인물이나 사건의 구성에서도 이와 비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아울러 통속성에 있어서도 경판본은 간결하고 소박하나 완판본은 풍성한 통속성을 가지는데, 이 작품은 완판본의 경우에 비해서 대단히 약화되어 과도기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 (3) ‘심청전’은 주제상으로 볼 때 완판본은 비합리적이며 주제성이 약화되어 있고 경판본은 대체로 합리적으로 짜여 있으며 주제가 명쾌하게 드러난다. 결국 ‘심청전’의 주제는 殺身成孝를 통한 救濟로서 極樂往生의 成就라고 하겠다. 여기서 ‘심청가’의 주제는 불교적 ‘孝’에 바탕을 두고 유교적 개념의 ‘孝’로 표면화되었다. 따라서 불교의 인연설과 업보의 진리가 이 작품에서 그대로 主題化되었다. 또한 경판본에서 완판본으로 내려오면서 信佛의 농도가 점차적으로 낮아지는데 불교신앙의 타락성을 후대적 특징과 함께 가진다.
- ‘심청가’에서는 불교적 신앙이 경판본보다는 약하지만 완판본보다는 강하게 나타남으로써 양자의 중간적 작품임을 드러내고 있다.
- (4) ‘심청가’는 장르상의 계통으로 보면, ‘심청전’을 가곡화한 판소리계 소설이다. 한편, 이 ‘심청가’가 직접 판소리로 設唱된 대본이라 할 때, 그것이 바로 연극을 뒷받침하는 희곡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 ‘심청가’ 전체가 읍문체, 가사체를 갖추고 있어 장편가사로서의 면모를 나타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같이 ‘심청가’는 하나의 작품이면서 서사문학적 구조 위에 몇 가지 장르의 성격을 입체적으로 겸유함으로써 異本의 특성과 함께 獨自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이상에서 ‘심청가’는 그동안 발굴된 異本 가운데 새로운 資料로서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완판본이나 그 계열의 활판본들을 원전으로 하여 논의한 결과가 상당한 문제점을 드러내게 되었거니와, 경판본계의 原典이 제대로 활용됨으로써 ‘심청전’에 대한 문제점이 解消되는 과정에 있는 것 같다. 此際에, 새로운 異本으로서 ‘심청가’가 발굴되어 소개한 것은 ‘심청전’의 종합적 연구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심청전’의 판소리화 내지는 연극화에 따르는 희곡적 改變, 展開, 그리고 그 표현문체의 歌辭化에 따르는 운문이나 산문의 交渉史 등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주리라 믿는다.

〈참고문헌〉

- 경일남, 「고려조강창문학연구」, 충남대대학원, 1989.
- 김기동, 『한국고전소설연구』, 교학연구사, 1983.
- 김동욱, 『한국가요의 연구』, 을유문화사, 1961.
- 김동욱, 『춘향전 연구』, 연세대출판부, 1965.
- 김태준, 『조선소설사』, 학예사, 1939.
- 사재동, 「심청전연구서설」, 『어문연구』 제7집, 1971.
- 소재영, 『고소설통론』, 이우출판사, 1983.
- 신기형, 『한국소설발달사』, 창문사, 1961.
- 신동일, 「심청전의 설화적 고찰」, 『논문집』 제7집, 육군사관학교, 1969.
- 이문규, 『한국고전산문연구』, 동화문화사, 1981.
- 이운허, 『불교사전』, 1931.
- 장덕순, 『국문학통론』, 신구문화사, 1960.
- 정병욱, 『한국의 판소리』, 집문당, 1984.
- 조동일, 「심청전에 나타난 비장과 골계」, 『계명논총』 제7집, 계명대학, 1971.
- 차상원, 『중국문학사』, 동국문화사, 1957.
- 채 훈, 『한국의 명저』, 현암사, 1969.
- 최강현, 『가사문학연구』, 정음사, 1979.
- 최운식, 『심청전연구』, 집문당, 1982.

【국문초록】

오늘날 <심청전>에 대한 연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터에 새로 발굴된 <심청가>를 연구하게 된 것을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심청가>는 구성상으로는 경판본의 후대적 징후로 무대상의 변화가 있고 몇 명의 인물이 더 첨가되었으며, 완판본보다는 몇 명의 인물이 생략되었다. 사건 전개에 있어서도 경판본보다 약간 복잡하게 처리되어 있고, 완판본보다는 비교적 단순하여 경판본과 완판본의 중간에 위치하는 과도기적 이본임이 드러났다. 내용면에서도 완판본의 장면보다 생략된 점이 있고 통속면에서도 경판본은 간결하고 소박하나, 완판본은 풍성한 통속성을 가지는데 <심청가>는 완판본의 경우에 비해서 약화되어 과도기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심청가>는 희곡적 성격과 장편가사로서의 면모를 나타내고 있어 하나의 작품이면서 서사문학적 구조 위에 몇 가지 장르의 성격을 입체적으로 겸유함으로써 이본적 특성과 함께 독자적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심청전>의 판소리화 내지는 연극화 그리고 표현문체의 가사화 등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주제어: 판소리, 연극, 희곡, 가사체

【Abstracts】

A Study of ShimCheong-Ga

Shim, Dong – Bok

Today, the study of <ShimCheong-Ga> is developing by several ways. In this time, it is very meaningful to study <ShimCheong-Ga> which is founded recently.

<ShimCheong-Ga> is composed the change of the stage and is added some characters in KyeongPan-Bon. But some of characters are omitted comparing with WanPan-Bon. In developing happenings, it is a little complicated than KyeongPan-Bon and a little simple than WanPan-Bon. Thus it become known that it is a different Bon which is between KyeongPan-Bon and WanPan-Bon in s transition period.

In contents, it is a little omitted than the scene of WanPan-Bon. In a common custom, it is a little weak than WanPan-Bon and it showed a situation of transition period. Even though KyeongPan-Bon's common custom is simple and plain, and WanPan-Bon's common custom is fruitful. Also, <ShimCheong-Ga> has the character of a drama and an aspect of a long words of song. It is a work of art and has several characters of genre in descriptive literal construction. Therefore, it has creative value with characteristics of a different Bon.

In accordance with, <ShimCheong-Ga> rendered great service to be the pansori, to be the play and to be the words of a song is a literary style of expression.

Key words: pansori, play, drama, literary style of a song

이 논문은 2009년 12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0년 1월 11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0년 2월 1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